

우리 종단을 말한다 | **해동불교임제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지암 스님

### “권위·형식 벗어나 임제선법 선양”

“부처와 닮고자 한다면 밖으로 구하지 마라. 한 생각 마음 속의 청정한 빛은 바로 그대 집속의 법신불(法身佛)이며, 한 생각 마음 속의 분별없는 빛은 그대 집속의 보신불(報身佛)이며, 한 생각 마음 속의 차별없는 빛은 그대 집속의 화신불(化身佛)이다. 이 세 부처는 바로 그대들이 곧 지금 눈앞에서 법을 듣는 그대를 자신이다.”

임제종의 개조인 중국 당나라의 선승 임제의현 선사는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고 철저한 자신의 언어만으로 연어만선을 강조했다. 해동불교임제종은 임제 선사

여 명의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 열중하고 있다. 특히 전남 여수시 돌산읍에 위치한 청암사는 '대중과 함께 하는 불교'를 실현하기 위해 2007년 11월부터 매월 6가구에 쌀 20kg을 지원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있는 관음도량이다.

본 종단은 해외 포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청암사, 황주중앙문화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 매년 각 지역을 방문했으며, 2009년에는 중국 측 인사들을 초청하



지암 스님.

### 사회복지와 부처님 말씀 전파에 힘써

###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호국 종단

의 법문을 따라 어떠한 사상적 권위나 제도권의 형식, 타성에 서도 벗어나므로 자유롭게 전법도생(傳法度生)하기 위해 2007년 2월 11일 창종했다. 역사적으로는 나옹 선사 이후 보조·보우 스님을 거쳐 한국불교 조사선의 최고봉으로 이어 내려온 임제종풍의 정통을 잇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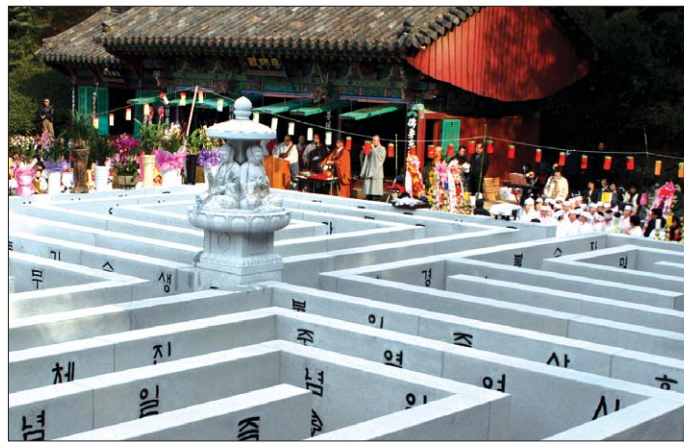
임제종은 △종안복지(宗安福祉) △포교전법(布教傳法) △불도정신(佛道精神)을 중후으로 삼아 사회복지와 부처님 말씀 전파에 힘쓰는 한편, 스님들은 수행에 매진함으로써 임제종풍 선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총본산 청암사를 비롯한 90여 개 사찰에서 100

는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해동불교임제종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펼쳐 임제종풍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노인요양보호사를 육성해 독거노인을 위한 자선사업을 마련하고, 소년소녀가장돕기운동 등 종단 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사업을 펼쳐 예정이다. 이에 필요한 종헌·종법을 제정해 불법을 통한 증생교화에 힘쓰고, 사회진정사업에 펼치는 중에도 수행과 전법에 최선을 다하는 불교도의 터전을 일굴 것이다. 진정한 호국불교 종단으로 전국, 나아가 전세계에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정진하겠다. (061) 644-7273 **정리=김진성 기자**

# 법계도 돌며 경제난 극복

## 화엄종 대본산 약사사 '화엄일승법계도' 및 사면불 점안

평면도라만 봐 왔던 '화엄일승법계도'가 입체적인 대리석 조각으로 조성돼 조형불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대한불교화엄종 대본산 약사사(주지 화엄)는 화엄일승법계도 낙성 및 사면불 점안 대법회를 11월 23일 봉행했다. 조계종 총도사 율주 해남 스님을 법사로 모신 가운데 열린 법회에는 화엄종과 지역 불교계 지도자스님 등 1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점안 의식은 일초 스님(인천광역시무형문화재10호 법패작법 보유자)과 이수자 등이 집전했다.



인천 약사사에 조성된 화엄일승법계도와 사면불.

법회에서 해남 스님은 법어를 통해 "화엄일승법계도는 일체만상의 무차별과 원융을 설하는 커다란 가르침"이라며 "이 뜻 깊은 불사는 화엄종과 약사사의 자랑일 뿐 아니라 한국 불교의 자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법계도를 조성하고 보니 '화엄변상도'를 축조해 일승원교의 가르침을 보다 장엄하게 구현하고자 하는 원력을 발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러한 원력과 발원으로 화엄종의 종지를 더욱 승화시키고 약사사를 전법의 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약사사 주지 화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 뜻 깊은 불사는 화엄종과 약사사의 자랑일 뿐 아니라 한국 불교의 자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법계도를 조성하고 보니 '화엄변상도'를 축조해 일승원교의 가르침을 보다 장엄하게 구현하고자 하는 원력을 발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러한 원력과 발원으로 화엄종의 종지를 더욱 승화시키고 약사사를 전법의 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스님이 당나라 지상사에서 <화엄경>을 연구하면서 그 뜻을 요약해서 계승으로 적은 노래의 도장(圖章)이다. 일승법계도, 법계도장, 해인도, 법성계 등으로 불린다. 약사사에 조성된 화엄일승법계도 조형은 높이 90cm 넓이 30cm 크기의 대리석에 7인 30구 210자를 한글과 한자로 새겨 넣은 형상으로, 첫 구절부터 글자를 읽으며 법계도의 사면을 돌 수 있게 구성됐다. 가운데 부분에는 비로자나불 연등불 석가모니불 미륵불을 사면불로 조성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한·중 교류 제1차 학술포럼

천태종, 12월 18일 서울 관문사서

천태종(총무원장 정산)과 원각불교 사상연구원(원장 권기중)은 12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관문사에서 '한·중 교류 제1차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화해(和諧) 사회와 불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양정원(楊正源) 소장(중국 불교문화연구소)이 '불교의 화해사상에 대한 해석 및 그 현대적 의의'를 △권기중 원장이 '불교의 화해이론과 실천방안'을

△지화환(紀華傳) 박사(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가 '중국불교에서 화해사회 건설의 이론에 대한 탐색과 실천'을 △윤이홍 명예교수(서울대)가 '현대사회의 화해와 복리증진, 국제협력 등에서 불교적 실천'을 △정정(正澄) 중국불학원 석사가 '조박초 거사와 중국의 인간불교'를 각각 주제 발표한다. **김진성 기자**

# 저출산고령화사회 복지포교 전략 세우아

## 진각복지재단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진각복지재단 심포지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현장의 실천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저출산고령화사회 도래 등 급변하는 사회 복지환경 속에서 불교복지현장의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회장·총무원장)은 11월 24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현장의 실천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재단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 진각종 총무원장 회장 정산은 "진각복지재단은 사회에 봉사·기여하는 마음으로 설립돼 늘날에 이르렀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 복지사에 한 획을 긋는 실천 활동을 다짐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개회사를 대신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황진수 교수(한성대)를 좌장으로 이무승 이사장(성북복지재단 이사장)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공상길 관장(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환경변화와 종합사회복지관의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이무승 이사장은 주제발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선진적 제도이지만 현재는 급여대상 범위의

지나친 축소(노인인구의 3.1%)로 사회보험 성격 퇴색, 시설인프라 지역별 편중과 민간 참여확대로 서비스 격차심화, 장기요양기관 경쟁력 문제 등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중장기 계획에 따라 독일, 일본 수준으로 대상자를 확대(13~15%) △장기요양기관시설인프라 조기 확충, 인증제실시 등으로 시설의 재정문제 해결 △요양보호사양성제도에 대폭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어 공상길 관장은 공동사회 붕괴와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도래, 도시화에 따른 주거문제, 서비스 경쟁의 가속화 등 달라진 사회복지환경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공상길 관장은 "앞으로 사회복지관은 △지역 양보협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거점 역할 △민·관의 수평적 파트너십 형성 △고객중심의 경영 자세 △민간위탁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사회복지관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 순천 선암사 순천시청과 대립

## 재산관리 재량권 범위 문제 등

전남 순천시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경담)와 순천시청이 재산관리인 재량권 범위 문제 등으로 대립하고 있다. 선암사는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사찰로 분류돼 순천시가 재산관리인 역할을 맡고 있다.

선암사 측은 순천시청이 사찰관리·감독업무에 소홀해 전각이 뒤물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양 종단의 동의 없이 차 체험관 및 향림사 매점 등 순천시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암사 총무 대해 스님은 "양쪽 종단의 어떠한 동의도 없었지만 순천시청이 일방적으로 차 체험관 등을 등기 등록했다"며 "주지스님의 당·현직 소임이었던 선암사 사찰 박물관장직에 순천시청을 임명했다"고

일방 통보하고, 선암사 문화재 관리를 명목으로 매표소를 운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입을 시 측에서 독점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또 "순천시청은 불상과 탱화 등 문화재 관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매일 저녁 10시~새벽 4시 사찰 출입문을 통제하는 등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암사 측은 현재 11월 8일 순천 시청에 보낸 공문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대해 스님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순리이지만 시청 측이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12월 11일 순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종단 현안 타개 위한

## 보우승가회 공청회

태고종 보우승가회(회장 도산)는 12월 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전통문화진흥원 회의실에서 '종단 현안 타개 위한 보우승가회 공청회'를 개최한다.

총무원장 윤산 스님과 보우승가회 등이 참석하는 이번 공청회는 현재 재까지 회자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종론을 일치시켜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보우승가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종단내·외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진실을 파악할 수 없다"며 "이번 공청회는 소모적인 공방을 중지하고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 BBS불교방송과 함께하는 새해 중국성지 순례

## 불기 2553년 기축년 새해 맞이 해돋이 선상 대법회

지도법사 - 성관, 혜각, 화담, 도안, 설호, 혜강 등 30여 스님  
희곡에는 무공스님 외 여러스님 분들을 모시고 봉행합니다.

기해 법문 : 성관스님(원용종 총무원장)  
오는 해 법문 : 혜각스님(화곡종 대가장사 주지)  
법회 후원법문 : 화담스님(용현 연화사 주지)

DATE	CITY	TRANSIT	TIME	ITINERARY	MEALS
제1일 12/31	인천 항	화동명주호	18:00	[13:30] 전선 5호선 마포역 4번출구 BBS불교방송국 앞 집결 [16:00] 출국수속 후 화동명주(화동명주) 승선 [18:00] 인천 항 출발 승선후 저녁 공양 * 기해 법문 : 혜각스님들의 주옥같은 법문과 선상 대천도재 * 신묘장구 대대라니 주력정진 * 망명대에서 선상 새해 맞이 소원성취 해돋이 대법회 HTL : 선상대인실 (HUADONG PEARLII)	D : 선내식
제2일 01/01	석도 항	전용 차량	18:00	[07:00] 선내 공양후 하선 준비 [09:00] 석도항 도착하여 하선 및 입국수속 * 적신법회원 * 정보고기념관 점심 공양후 위해 문중으로 이동 (약 40분소요) * 천북은천옥 체험 (수영복 자켓) 전신맞사지 선택 석도 구한 [15:30] 승선 및 출국수속 [18:00] 석도항 출발 선내 저녁 공양 및 회향 이벤트 HTL : 선상대인실 (HUADONG PEARLII)	B : 선내식 L : 현지식 D : 선내식
제3일 01/03	인천 항	화동명주호	08:00도착	[07:00] 선내 조식후 하선 준비 [08:00] 하선 준비 [09:30] 하선 및 입국수속	B : 선내식

- 동참금 ₩ 368,000원 (개인경비 및 위패 비용 별도)
- 접수서류  
여권사본 (유효기간 6개월이상)
- 입금계좌 : 외환은행  
630-006273-631  
[예금주 : 구기법]

### BBS 불교 방송 문의전화 02)705-5308~9

### 화제의 신간

## 해심래정 택일지

365일 매일 한 장씩 읽을 수 있는  
한 눈에 훤히 볼 수 있게  
뽐아놓은 래정비법!

4×6배판/칼라제본/436쪽/정가 20,000원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신개념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매일매일 운세 보는법 공개...

특수 초사법 공개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 무엇이 발났는지  
\*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 어느 조상이 붙어 있는지  
\*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귀신 뽑는 래정비법으로 최강하게 알고 간언이 할 수 있는 비법 공개!  
최강자 일진비법 6만여명에 육박할 수 있게 초사법을 확립하게 함!  
신국문/양정본/567쪽/정가 120,000원 \*\* 04비책스님

百超律歷學堂 Tel : (02) 3667-4446 입금계좌(예금주 : 조영신) 농협 023-02-478822 H.P : 010-3813-4443 신한 010-3813-4443